



소진공, 제1회 전통시장 대학생 사진공모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26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제1회 전통시장 대학생 사진공모전'을 통해 수상작 21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에 대한 MZ세대의 관심도 제고와 지속적인 방문을 위해 전국 대학(원)생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전통시장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참가해 총 1513점이 접수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심사에는 사진학과 교수, 프로 사진작가 등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작품설명 △대중성·독창성 4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총 2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은 오성현 학생의 '대천항 수산시장의 기쁨'이라는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 작품은 신선한 해산물과 활기찬 수산시장의 매력을 표현했다.

나다운 기자



무협지역본부, 수출기업 日시장 진출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무역회관에서 지역 수출중소기업 대상 '식품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수출중소기업의 일본 식품시장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내 온·오프라인 유통현황, 유통채널 전망, 식품시장 트렌드 등을 다루는 일본시장 전문가를 초청해 일본 식품시장 수출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특히 요즘 일본 식품시장은 빠르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려는 일본 소비자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냉동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비건, 글루텐프리, 오가나 식품과 같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고급 제품라인을 찾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기업들은 세미나 종료 후 현장에서 이루어진 Q&A세션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현장 정보를 얻고, 일본 식품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박소영 기자



고흥군, 전 군민 참여 '사랑의 헌혈' 실시

고흥군은 27일 전 군민이 참여하는 하절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단체 헌혈은 고흥군 보건소 주관으로 지속되는 폭염으로 광주·전남 지역 내 혈액 재고가 가장 부족한 기간을 정해 진행됐다.

많은 군민들의 헌혈 참여를 위해 고흥군청, 도양읍사무소, 고흥종합병원 3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고 군민 및 소속 공무원 12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고흥군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지난 1월에도 총 106명의 헌혈자를 모집한 바 있다.

고흥군은 올해 1월부터 8월27일까지 고흥군 공무원, 고교생, 청년회 등 총 530여명이 헌혈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 기자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소음 특위' 개최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 26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향후 특위 활동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병철 위원장과 박현석 부위원장, 윤혜영·박미옥·정재봉·양만주 위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돌파구를 찾고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또한 국방부와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논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공병철 위원장은 "2018년부터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탬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전남신보, '어린이 탄소중립 팝업북' 기부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탄소중립 팝업북'을 제작해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팝업북 제작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다소 어려운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입체적으로 제작해 시각적인 교육 효과를 높였다. 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80여개의 탄소중립 팝업북은 사단법인 글로벌비전을 통해 전국에 있는 아동생활시설에 기증돼 환경교육 교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팝업북 기부 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전남대병원, 광주 북구 백세인 조사 발대식

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은 최근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박물관 문석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백세인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연구조사'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사진)

이날 발대식에는 김광석 공공부원장, 박광성 소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등을 비롯해 문 인 북구청장, 이건호 단장, 이정화 학장, 안민정 부학장,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구단은 광주 동구, 서구에 이어 북구 9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식습관, 가족·생활환경 변화 등을 전남대노화와 학연구소와 함께 조사해 장수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주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의 방문을 통해 대면조사로 이뤄진다.

노병하 기자

광주CBS, 나주서 '2024 육아포럼 가족이 된다' 개최

내달 5일 오후 7시 한전 한빛홀 조선미 아주대 의대 교수 강연 뮤지컬 '트니트니 탐험대' 공연

광주CBS(대표 권신오)가 보건복지부·나주시와 함께 '2024 육아포럼'을 개최한다. (포스터)

광주CBS는 '2024 육아포럼 가족이 된다 in 나주'가 9월 5일 오후 7시 한국전력 1층 한빛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육아포럼은 예비 부모와 영유아, 취학 아동 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가족 내 개인화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가족의 의미와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CBS는 저출산, 육아, 출산, 문화 등을 주제로 지역을 순회하며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긍정적 가치 발견과 이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뮤지컬 '트니트니 탐험대' 공연과 임현주 아나운서(작은 인간을 환대하는 마음)와 조선미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영혼이 강한 아이: 좌절 내구력을 키우는 법)의 강연, 질의응답 순



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광주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되며 포럼 사전 신청은 광주CBS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행사장에서는 선착순으로 음료와 키즈위터가 제공되며 행사 이후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도 증정된다.

포럼이 진행되는 한전 1층에는 임신과 출산, 돌봄 등 육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나주=김용의 기자

“고영욱, 평생 유튜버 못 해”… 결국 채널 삭제 당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사진)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가운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밖에서의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Go!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고 지난 26일 헤럴드경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고영욱은 최근 자신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과 관련 “없애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라며 토로했는데, 유튜브가 내부 논의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근거로 그를 제재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도 고영욱은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을 할 수 없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 ‘유튜브 커뮤니티 보호하기’ 항목을 살펴



보면,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 행위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첫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안양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등에서 형량을 채웠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지만, 상당수 누리꾼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의 유튜브 개설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지난 20일에는 고영욱의 유튜브 활동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민현기 기자

NCT 재현, 솔로 데뷔 ‘성공’… 韓·中 음원 차트 1위

그룹 ‘엔시티(NCT)’ 재현(사진)이 솔로 데뷔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공개된 재현의 첫 솔로 앨범 ‘제이(J)’ 타이틀곡 ‘스모크(Smoke)’는 벅스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앨범 ‘제이’는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의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 ‘스모크’는 리듬감 있는 베이스 연주에 그루비한 목소리, 풍성한 기타 연주가 조화를 이룬 힙합 알앤비(R&B) 곡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차 안에서 보내는 로맨틱한 순간을 음악과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에 비유한 가사가 특징이다.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재현의 심리를 다양한 오브제와 흑백을 오가는 영상미로 표현했다.

재현은 이날 오후 8시 NCT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첫 솔로 앨범 제작기 ‘더 저니 오브 제이(The Journey of J)’ 파트 2를 공개한다.

뉴시스